

광주은행·농협, 광주공공배달업 활성화 3억 기탁

할인쿠폰·배달료 지원 등에 사용...지역 상생가치 실현 강기정 시장 “경제 활성화...다함께 착착착 동참 감사”

광주은행과 NH농협은행이 광주공공배달업 활성화에 힘을 보탤다. 두 은행은 광주경제 다함께 착착착(착한 소비·착한 금융·착한 일자리)의 하나로 3억원의 지원금을 기탁.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더하는 ‘착한 금융’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1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은행·NH농협은행 광주공공배달업 활성화를 위한 기탁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번 기탁금 전달식은 강기정 광주시장, 고병일 광주은행장, 장재영 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원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기탁금은 광주은행 2억원, NH농협은행 1억원 등 총 3억원을 전달했다.

기탁금은 광주경제진흥원생일자리재단을 통해 광주공공배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비자

할인쿠폰과 배달료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광주공공배달업은 어느 지역보다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광주은행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장재영 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은 “나눔을 통해 지역과 동반성장하기 위해 광주공공배달업 활성화에 동참했다”며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공공배달업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 광주상생카드 탑재로 시민들의 주머니를 두텁게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광주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함께 착착착’의 착한금융을 실천해준 광주은행과 NH농협은행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13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고병일 광주은행장, 장재영 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으로부터 광주공공배달업 활성화를 위한 기탁금을 전달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한편 광주시는 2%의 낮은 중개수수료를 적용한 광주공공배달업 ‘위메포’와 ‘땡겨요’를 운영하고 있다.

주말 소비 촉진 할인쿠폰 발행, 광주상생카드·은누리상품권 결제시스템 탑재, 배달업 운영사 자체 프로모션 등 다양한 할인 행사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광주공공배달업 가맹점 수는 지난해 기준 1만 4916개소로, 시행 초기보다 12배 상승했다. 같은 기간 누적 주문 건수는 179만건, 누적 매출액은 444억원으로 집계됐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PEOPLE

2025년 3월 14일 금요일



가나이엔지주 나주에 사랑의 성금 300만원 쾌척

나주시는 최근 가나이엔지주가 저소득 가정을 위해 사랑의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

가나이엔지주는 빛가람동에 소재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올해로 3년째 이어진 기부 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기탁식은 안상현 부시장, 정광래 대표 등 관계자 5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탁된 성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및 다자녀 가정 등 취약계층에 지원될 예정이다.

정광래 대표는 “이번 나눔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안상현 부시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정광래 대표께 감사드립니다”며 “성금은 기탁자의 마음을 담아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광주 동부소방 여성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

광주 동부소방서는 13일 한국마사회 광주지사에서 동부여성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이임하는 이행욱 제13·14대 여성대장은 2007년 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에 입대해 후 부대장과 여성대장직을 역임하며 18년간 동부여성의용소방대원과 함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새롭게 취임한 장민주 제15대 여성대장은 2013년 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에 입대해 총무부장, 부대장직을 수행했다.

장민주 여성대장은 “앞으로 의용소방대원과 함께 각종 재난 현장에서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화합과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희준 동부소방서장은 “이행욱 대장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장민주 신임 여성대장이 이끌어갈 여성의용소방대가 더욱 발전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고령 전립선암 환자도 방사선치료 효과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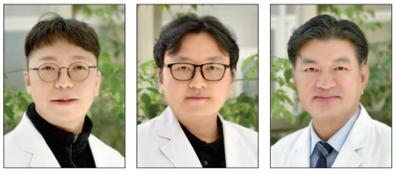
남택근 화순전남대병원 교수팀 논문, 국제학술지 게재

고령의 전립선암 환자도 방사선 치료 효과가 높다는 내용의 연구 논문이 국제 학술지에 게재됐다.

13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최근 남택근 방사선종양학과 교수팀의 ‘고위험 전립선암 환자에서 연령군에 따른 세기조절 방사선치료 결과의 비교’에 관한 연구논문이 세계적인 권위의 유럽방사선종양학회지에 발표됐다.

책임저자인 남택근 교수는 김용형, 정재욱 교수(공동 제1저자)와 화순전남대병원에서 고위험 전립선암으로 진단돼 근치적 목적의 세기조절 방사선치료를 받은 56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성향점수분석(propensity score analysis)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75세 미만 군과 이상 군 사이에 다양한 변수의 균형만 맞춰진다면, 종양 치유율과 합병증 발생률, 중앙 특이 생존율 등에서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정재욱 교수 김용형 교수 남택근 교수

암 진료 가이드라인(NCCN)에서는 고위험군의 전립선암 환자에서 근치적 목적의 방사선치료는 대상 환자의 기대여명이 최소 5년 이상인 경우에 권고하고 있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는 평균적인 건강 상태의 현재 80세 남성의 기대여명이 8.26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남택근 교수는 “고령의 전립선암 환자들이 단지 고령이라는 이유로 치료를 회피할 것이 아니다”며 “적극적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사선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구례군은 최근 ‘내가 바라는 공직 생활’이라는 주제로 ‘소통으로 함께하는 구례데이’를 가졌다.

구례군, ‘소통으로 함께하는 구례데이’

군수-직원 소통·공감의 장 마련

구례군은 최근 ‘내가 바라는 공직 생활’이라는 주제로 ‘소통으로 함께하는 구례데이’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소통으로 함께하는 구례데이’는 군수와 직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감 대화의 장으로, 구례군이 유연하고 혁신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획됐으며,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맞는 감

성적 소통 방식을 실천하는 직원 소통행사다. 이번 ‘소통으로 함께하는 구례데이’는 전남도 제14호 민간 정원으로 지정된 광의면 천개의 향나무에서 개최했으며, 22명의 직원은 ‘내가 바라는 공직 생활’이라는 주제로 김순호 군수와 편안한 분위기에서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김순호 군수는 “구례군 조직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모두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신규직원들의 다양한 고민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모두가 소속감을 느끼는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례=전정희 기자 dong-eah@gwangnam.co.kr

전남농기원, (주)파미와 수직농장 연구개발 ‘맞손’

양액공급 시스템 공동연구·상용화 협력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최근 수직농장 업체인 (주)파미와 미래형 원예산업의 모델 개발과 지역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선채소 등의 안정적인 연중생산 공급과 기능성 성분 증진을 촉진해 전남도 원예산업의 소득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직농장형 스마트 작물생산 시스템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노지 농업을 보완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 농법은 작물의 성장에 필수적인 광환경과 온도, 습도, 환기 등을 초정밀하게 조절해 작물의 기능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연중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채소류 수직농장 관련 공동연구 △스마트 양액공급 시스템 공동개발 협

내외적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노지 농업을 보완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 농법은 작물의 성장에 필수적인 광환경과 온도, 습도, 환기 등을 초정밀하게 조절해 작물의 기능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연중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채소류 수직농장 관련 공동연구 △스마트 양액공급 시스템 공동개발 협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최근 수직농장 업체인 (주)파미와 미래형 원예산업의 모델 개발과 지역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력 △기타 상호 협력사업 발굴 및 공동발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나주시에 위치한 (주)파미(대표 박병운)는 AI 기반 스마트팜 플랫폼 개발 기업으로, 2016년부터

인공지능 스마트팜 수직농장 시스템 개발과 기능성 증진 약초류 실내생산 기술개발을 추진해 기술력을 인정받은 토종기업이다.

김행란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은 “지역 R&D업체가 보유한 전문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전남 농업기술원이 현장 활용성을 더욱 확장 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사회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한걸음센터. 문의 062-374-2818.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월~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월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성보급 등 진행. 062-223-1357.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 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0030.
▲봉사 함께 할 광주VIP라이온스클럽 회원=심신 건강한 남·여 환영. 문의(회장) 010-3223-4311. (총무) 010-3365-0065.

은세 (음력 2월 15일)

- 48년생 가족에게 관심을 돌려 보라
- 60년생 자녀 마음까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 72년생 애인으로 인한 구설수를 조심
- 84년생 집안 일에 충실하면 잘 풀리니 마련
- 96년생 소신을 갖고 일을 진행하라
- 51년생 인과응보라는 것을 알고 있오라
- 63년생 판세를 좌우하는 요인이 보인다
- 75년생 배우자의 동의를 얻을 운
- 87년생 동부서주하나 때를 기다리라
- 99년생 지금 힘들지만 조금만 참으라
- 54년생 순리대로 행하면 형통하리라
- 66년생 지금 당장 머리부터 식하라
- 78년생 문서의 변동으로 어수선한 날
- 90년생 좋은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헛수고
- 57년생 분명하게 유념해야 뒤떨어 있다
- 69년생 예상되는 애경사에 대비하라
- 81년생 간헐적이긴 하지만 무시할 수 없다
- 93년생 반복되는 형상이로다
- 49년생 지난 일에 집착하지 말라
- 61년생 양보하면 오히려 득이 될 것
- 73년생 직업, 직장 변동 조심
- 85년생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 97년생 사람 운이 좋은 시기
- 52년생 지인과의 의견 충돌 예상
- 64년생 변동으로 어수선한 날
- 76년생 귀인의 은혜를 입게 될 것
- 88년생 부동산에 투자하라
- 55년생 아랫 사람의 말을 멀리해도 좋으리라
- 67년생 크게 상관될 바는 아니니 넘어가라
- 79년생 일에서는 감동할만 하라
- 91년생 오늘 운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라
- 58년생 건강에는 조기검진이 필요하다
- 70년생 이슬이 옷 젖는줄 모른다
- 82년생 화해하면 더 큰 이익이 있을 것
- 94년생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
- 50년생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격
- 62년생 가정 경제가 다소 회복 될 것
- 74년생 오락에 시간이나 돈을 허비한다
- 86년생 절교만이 최상의 방법이다
- 98년생 말 다툼을 주의하라
- 53년생 술선수범 한다면 만사가 순조롭다
- 65년생 경쟁상대는 귀하보다 한 수위
- 77년생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라
- 89년생 뒷사람 말에 상처를 입는 운
- 56년생 좋은 기운이 귀하를 맴돌고 있다
- 68년생 값어치 있게 활용하라
- 80년생 성실함 하나로 능히 이룰 것
- 92년생 생기발랄한 편도가 조심되리라
- 59년생 문서가 오간다면 좋은 결과
- 71년생 심오한 뜻을 깨닫는다
- 83년생 현행대로 진행하는 것이 무난
- 95년생 과도한 욕심은 망치게 한다